

## 새만금 '규제 제로' 미래산업 실증의 땅 열려

###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정부 국정과제 최종 반영 'ABCDEF+G' 산업 생태계 조성 헵프·첨단바이오 등 실험 중심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장해 온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새만금이 규제 없는 실증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실증이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글로벌 첨단 전략산업 기지이자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 제로화와 첨단 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

단순히 개별 기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SOC, 인재양성, 세제, 전력요금, R&D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새만금은 291km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에 각종 SOC 인프라

를 구축해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능력까지 확보한 준비된 전략지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수립해 ▲헵프 산업 클러스터 ▲첨단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무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국정과제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고 분과별 심층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새만금정책포럼을 통해 국회의원실, 중앙부처, 학계 전문가와 공동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협력도 병행된다. 산업·투자유치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하고, 주요 과제를 공동 대응함으로써 제도 시행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

인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도 연계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된 것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무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현실화되도록 전북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대낮 '물폭탄'에 도로 곳곳 물난리 17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전주시 유연로 일부 구간 등 도로에 침수가 발생하며 피해가 잇따라 전북소방청이 물빼기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사진=전북타임스/소방청 제공>

## '통일교 1억 뇌물' 권성동 구속 특검 현역의원 첫 신병확보

###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권 의원 "본격적 정치탄압 시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수감됐다. 3대 특검 출범이후 현역 의원 구속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자정께 전달받부터 이어진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부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공권 사인을 확보해 제시했다. 또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부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 달라'며 윤 전 부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



권성동 의원

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수사에 착수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실패"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는 글을 올려,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장애인생산품 명절판매 행사

### 9개 청사 순회 우수상품 판로 확대 추석 선물세트 등 전시·판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30일까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장애인생산품 명절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면 판매행사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판매도 병행하며 익산시청(17일)을 시작으로 ▲김제시청(19일) ▲고창군청(23일) ▲부안군청(24일) ▲정읍시청(25일) ▲전북도청(26일) ▲전주시청(28일) ▲순창군청(29일) ▲완주군청(30일) 등 전북도청을 포함한 9개 시군청사 내·외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에서 생산한 떡, 김, 누룽지, 홍삼 등 명절맞이 선물세트와 비누,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추가증정 등을 통해 평소대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행사에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구매 호응으로 목표액 대비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전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 전북 가을 문화관광, 혁신으로 물들다

### 첫 공동 문화도시 박람회 개최 도청서 관광굿즈 팝업스토어

전북도가 올가을 문화체육관광 전반에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변화를 시도한다.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북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와 공유하고, 관광굿즈 팝업스토어와 전북투어패스는 지역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과 연결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개정은 선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고, 장애인체육대회는 화합의 장을 연다. 전국 최대 '국가유산 야행' 선정은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야간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완주 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전국 최초의 공동 문화도시 프로젝트인 '전북권 문화도시 박람회'가 막을 올린다.

전주·익산·완주·고창 4개 법정 문화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별 홍보관과 포럼, 시민 체험, 공연을 선보인다.

또 관광분야에서는 전북의 매력을 상품화하고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추석을 맞아 도청 로비에서는 전북 관광 브랜드를 알리는 '전북 관광굿즈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전북관광기념품 100선, 관광굿즈 공모전

선정작, 전북투어패스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전용 '전북투어패스' 상품도 새롭게 출시돼 글로벌 플랫폼 '케이케이데이(KKDAY)'를 통해 판매된다.

전북도는 카세어링 업체 '그린카'와 협력해 투어패스 이용객에게 20~3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2017년 도입된 전북투어패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4만 3천 장이 판매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정철 기자

임실군의회  
IMSIL-GUN COUNCIL

열린의정! 으뜸의회!

#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	 양주영 부의장	 장종민 의장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	 정일운 의원	 이성재 의원
---------------	--------------------	----------------	---------------	--------------------	---------------	---------------

# '농생명산업수도' 전북, 지역특화 발전 전략 고도화

## 농생명산업 혁신 포럼 개최 디지털 전환 맞춘 전략 모색 스마트팜·푸드테크 연계 글로벌 식량 공급망 허브 목표

농생명산업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제2회 전북포럼에서 농생명산업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고도화하는 장이 마련된다.

전북자치도는 23일부터 24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전북포럼에서 '농생명산업 지역특화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을 진행한다.

전북의 미래산업 중 하나인 농생명 분야의 대전환과 생명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은 24일 오후 2시부터 스위트홀에서 열리며, 정책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농생명산업 세션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전주기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 실증부터 청년농 육성, 에너지 자립, 식품 산업과

의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공유된다. 발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풀무원기술원, 남원시가 맡는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 농생명산업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계 곡물 공급망 위기와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농업이 감당해야 할 핵심 과제를 소개한다. 그는 농업이 더 이상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에너지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션에서는 풀무원기술원이 전북과 함께 상상할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비전도 발표한다.

풀무원은 AI·IoT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대체육·기능성 식품 개발, 스마트팜 연계 고부가가치 전략 등을 소개하며, 전북이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조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맞춤형 영양식, 건강 기능식품, ESG 기반의 지속가능 식품 개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사진=전북도>

발 로드맵도 함께 공개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생명경제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서 농생명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촌 구조 개편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북이 국내외 푸드테크 기업의 실증·투자 거점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은 이제 생존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다"며 "전북이 보유한 농생명 인프라와 청년 정착 기반, 기술 연계 생태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도지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도의회 "새만금에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 구축하자"

## 반도체 기업 새만금 투자 촉구 "RE100 달성, 기업 생존 필수 조건 국가균형발전 위해 결단 내려야"

도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핵심 경쟁 요소로 요구하고 있다"며,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기피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에게 RE100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용인은 수도권이라는 입지 특성상 구조적으로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적 리스크를 동시에 초래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 기업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했다.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에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를 구축하자.

둘째, 삼성, SK 등 반도체 기업들은 새



전북도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기업들에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만금 투자를 촉구했다.

<사진=전북도의회>

만금 투자를 통해 RE100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라.

태계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

셋째, 새만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

/장정철 기자

# 부안 한국학미래진흥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한국학 전문인력양성 토대 마련 관광자원화 연계 사업 추진

전북도의회 김경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 및 유교문화의 진

흥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 활용을 통해 대중화와 관광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전라권 한국학 및 유교 문화 진흥을 주도하고자 부안군에 건립 중인 시설이다.

진흥원의 운영방향은 기존 진행되던 도 사업(유산관리과, 문화산업과, 전북학연구소)을 이관하고 전북학연구, 의병기념사업 등 공공관위탁사업이 다수 이관될 예정이다.



김경기 도의원

김경기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학미

래진흥원은 한국학과 지역학을 연결, 향후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고 향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안군이 한국학 연구의 전초기지로 나아갈 것이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한국학을 세계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민주당-국힘, 19일 민생경제 협의체 첫 회의

## 여야 '3+3' 실무진 회의 구성 민생경제 공동공약 우선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17일 공지를 통해 "의제는 공동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양당 협의체에는 양당의 정책위 의장·부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3+3' 실무진

중심으로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우선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기업의)배임죄 완화,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법)',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IRA)법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의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애견카페 '멍푸치노' 사료제조업 등록 준수해야"

## 반려동물시설 간식 제조 증가에 동물 간식 제조업 등록 의무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간식을 자체 제조·판매하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 등이 확대되었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멍푸치노', '멍젤라또', '멍들렌' 등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제조·판매하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간식을 포함한 사료를 제조·판매·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

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조시설 기준 충족, 사료 성분등록, 표시기준 준수, 정기적 자가품질검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료제조업 등록 필수 ▲성분등록·표시기준 준수 ▲정기 자가품질검사 실시 ▲무등록 제조·판매 시 처벌 가능성이 강조됐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반려동물 간식도 사람의 식품처럼 안전성과 위생이 최우선"이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영업자들이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한병도 "소방활동 방해 심각...무관용 강력 대응해야"

## 최근 5년 소방활동 방해 1,341건 피의자 미성년자군인 포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며 이 같이 공개했다.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한병도 의원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 어 △경기 248건(벌금 120건, 4억 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 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

건, 1억 1,2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운전자

1.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세요
2. 불법 주정차는 하지마세요
3.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어린이

1.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2.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3.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세계인 상대 문화예술 마련

## 전주드론축구월드컵서 선보여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

전주대표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가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참여하는 세계인을 상대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며 전주문화를 알린다.

전주시는 '2025년 전주 드론축구월드컵'에서 전주한옥마을을 대표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를 세계인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노상놀이야'는 합작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이 진행을 맡는다.

공연은 △가접놀이 △마당놀이 △대동놀이 가 결합된 전통연희 퍼레이드로 마련되며 다채롭고 흥겨우게 펼쳐질 전망이다.



전주대표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가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참여하는 세계인을 상대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며 전주문화를 알린다

이다.

이번 특별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광장에서 진행된다.

'노상놀이야'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남천교부터 경기전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공연을 통해 대회에 참가한 33개국 선수단 등 세계인에게 전주 문화예술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연희 흥겨움을 더해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찾는 전주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배달노동자 이륜차 무상점검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대상

전주시와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업을 이용하는 100여명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점검을 17일 실시했다.

시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무제공자 사고성제해 예방사업' 국비를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 이동노동자 안전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무상점검은 배달노동자의 주요 이동수단 오토바이 제동장치·타이어·소음·배기가스·조향장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 교체도 지원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이동노동자 상담의 날 및 안전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안전가방과 안전반사판, 안전보호대 등 안전물품이 전달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배달노동자는 "평소 소홀했던 부분까지 전문가가 직접 점검을 해주고 무상으로 소모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배달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쿠팡이츠서비스와 같은 기관 및 기업의 노력만큼, 행정에서도 민·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배달 문화가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의회, 김동한·최서연·이성국 의원 대표 발의안 '채택'

##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김동한 의원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7일 김동한·최서연·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안이 채택됐다.



이성국 의원



최서연 의원

김 의원의 건의 주요내용에는 △국회의 공공기관 원소제지 복귀 및 타 지역 통폐합 차단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재집중 방지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제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7일 김동한·최서연·이성국의 원 대표발의안이 채택됐다

이와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장사시설 폐쇄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 제도화 △장사시설 장기 운영계획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 결의문을 통해 △의제제출시

액공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는 법령 개정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위한 공제율·한도 개선 △조세 형평과 과세 중립성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 등을 본 내용에 넣었다.

전주시의회는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병원 김우주 전임의, 국제학술대회서 수상

치주조직재생연구국제학술상 2관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중철)은 치주과 김우주 전임의가 국제학술대회에서 '잇몸 조직 수복용 점착성 생체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Hatton Award와 (재)대한치주연구소 우수학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에서 주관한 이번 학술경연대회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진행됐다.

김우주 전임의는 '광중합성 생체점착제와 콜라겐 매트릭스를 병합한 치은 조직 재생 평가'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병원 치주과 윤정호 교수 연구팀이 포항공과대학교, ㈜바이오트릭스와 공동 수행한 것이다. 특히 탈세포화된 점막조직 세포외기질을 기반으로 한 점착성 수복제와 콜라겐 매트릭스를 치은 결손부에 국소 이식하여 실제 조직 재생 효과

를 평가한 최초의 시도다.

연구 결과, 구강 내 스캐닝과 조직 계층적 분석에서 점착성 생체소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이식제 고정성·점착력·생착률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각화치는 재생도 촉진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점막조직 세포외기질 기반의 점착성 생체소재가 향후 치주조직 재생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우주 전임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치주조직 재생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앞으로 환자 맞춤형 재생치료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중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이 보유한 연구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연구를 강화해 미래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하나은행,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맞손'

## 산단 입주 희망하는 기업 대상 연 최대 1.2%p 우대금리 적용

전주시가 하나은행과 손잡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와 하나은행은 17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자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최홍길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가 추천하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들은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 관련 업무 △대출입 서비스 △각종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산단 입주 희망기업들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산단 입주기업의 초기

정착과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분양을 시작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주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최고의 외환 전문 은행인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든든한 금융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비롯한 지역 내 투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자녀 미디어 사용조절 관련 부모 교육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17일 '2025 3차 분기별 부모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조절을 주제로 한 부모 대상 교육을 온라인 실시간 교육(ZOOM)으로 운영한다.

이번 분기별 부모교육은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증가 추세에 발맞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과 함께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이시훈 강사(성교육전문가)와 와이미 대표강사가 '디지털 리터러시 세대를 위한 성교육'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오는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박옥순 강사(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문가)가 부모·자녀 소통법과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돕기 위한 양육 원

리를 소개하는 '2025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부모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각 교육은 선착순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ijisngda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온라인 부모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에 피해청소년 회복지원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전주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개인 상담, 전화상담, 치유지원(병원연계) 등 미디어 과의존 수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

## 천서영·최용철·온혜정 의원 등 5분 자유발언 통해 시정 현안 다양한 의견 제시

1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며 "전주시는 정기적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은 전주시의 재정 위기가 시 단위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는 생활인구 161만명이 넘는 광역단위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받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국회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온혜정 의원(우아1·2, 호성동)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 의원은 "외벽 붕괴와 철근 노출 등으로 주민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취약계층 거주 단지는 위험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전 점검 확대와 보수지원 연

결성 강화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원 규모 확대 △유지·보수비 지원 제도 개선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8231;2,금암동)은 전기차 화재 최소화화 대응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주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있어 화재시 대피와 진압이 어렵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과 전북도와 협의를 통한 자부담을 완화 등 화재 대응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의원(삼천1·2·3,효자1동)은 '하루만으로도 부족한 도시' 도약을 위한 전주시 관광 루트 설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주는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수변산책로, 예술공간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체험형 콘텐츠 확장을 통한 관광 설계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생활권·교통권에 맞는 순환형 관광 루트를 설계하고, 전통시장을 체험형 거점으로 변모시켜 '하루만으로도 부족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남전주IC 개통에 따른 모악로 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전주-순창을 잇는 모악로는 평소에도 혼잡한데, 전주-세마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회도로 신설 및 확장 △남전주IC 연계 도로망 정비 △대중교통망 강화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 모악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확대

## 골든타임 확보 첨단 기술 군산익산정읍구급차 이송 시간 4분 49초 단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대폭 확대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ITS) 사업' 일환으로서 "위급환자 이송, 화재·구조 현장 출동" 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첨단 기술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군산, 익산, 정읍 소방서의 모든 지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운영차량과 함께 군산소방서 펌프차 1대까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 성과는 군산시청, 익산시청, 정읍시청, 군

산·익산·정읍경찰서 등 유관기관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 따른 결과다.

소방본부는 2025년 8월까지 총 627건 재난 현장 출동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구급차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49초 단축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 확대는 지난 4월 전주시 전면 확대에 이은 것으로 군산·익산·정읍 소방서까지 확대가 됐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 대폭 확대는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지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해당 시스템은 긴급 상황에서만 가동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차량을 대폭 확대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기안전공사 '행복음악회 시즌3' 공연

24일 클래식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마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전북혁신도시 분사 새울림홀에서 혁신도시 주민을 위한 행복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남화영 사장은 행복음악회를 통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클래식 공연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행복음악회를 통해 "퇴근길 가볍게 들러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속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공사와 전라북도의 후원으로 (사)소리문화창작소신(대표 박신)이 연출한다.

세계적인 오페라 '투란도트' 아리아부터 뮤지컬 '레미제라블', '알라딘' OST, 그리고 한국 가요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행복음악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 주민에게 품격 있는 문화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예술인을 위한 정식



공연 무대를 마련하고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행복음악회는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전북혁신도시 분사 새울림홀에서 진행된다.

남화영 사장은 "행복음악회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지역 예술인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민간 산업용 미생물 '농업미생물은행'이 함께 지킨다

## 농진청 농과원-국순당 안전중복보존 협약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17일 농업생물부에서 국순당(대표이사 배상민)과 산업미생물 안전중복보존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순당은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미생물을 농업미생물은행에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게 됐다.

농업미생물은행은 기탁된 미생물을 액체질소보존법과 초저온보존법으로 보존하게 된다. 영하 196도를 유지하는 액화질소 냉동고는 권한을 가진 기탁 기관의 작업자만 접근할 수 있고, 입출고 내용도 모두 기록된다.

초저온 냉동고도 두 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안을 유지하고, 기탁자와 농업미생물은행 담당자가 함께 열어야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보존된 미생물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기탁 기관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보존 기간은 최초 5년 이하이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중복보존을 취소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기업에서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미생물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만일을 대비해 국가 보안 시설에서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순당 신우창 연구소장은 "전통주 맛과 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인 미생물을 농업미생물은행에 중복보존함으로써 미



생물 보존 부담을 덜고 고품질 전통주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는 기업, 연구소, 대학이 보유한 산업용, 연구용, 교육용 미생물 자원이 유실되지 않도록 국가가 맡아 장기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지원 선진화 사업'의 하나로 2021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이 수행한다. /정소민 기자

# 팔복동 대기환경 개선 논의 민관위원회 회의 개최

## 전주시 17일 민·관 협력 대기환경 개선 현장 행정

전주시는 17일 팔복동 소재 CEK(㈜ 전주사업부에서 만성지구에 거주하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팔복동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 오염 문제 해를 위한 민·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조기성 CEK(㈜ 지사장으로 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 개선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또 민간위원들과 함께 팔복동 공단지역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는 개선공사가 완료된 현장 시설을 둘러보며, 기업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주민대표들과 함께 공유 시간을 갖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주민들과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소통하는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현장에서 개최된 민·관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직접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중기중앙회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 수의계약·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를 돕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마련됐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정부·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받아 견적(가격 경쟁력)만으로 구매하는 제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

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이날 현재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59개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를 통해 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활용 방법과 함께, 제도 활용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우수사례 소개 순서에는 △과학기기(조) △건축물용역(조) 등이 발표자로서, 품질 향상과 성실한 계약 이행을 통한 수요기관과의 신뢰 구축 중요성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합추천 구매제도는 판로지원에 근거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쟁을 통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공공기관·지사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 제도 활용 시 품질 보장과 함께 관련 조합 추천을 통해 적정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 탐색 비용 및 행정 /정혜민 기자

## 전북도, 내장산서 '전북탐방 프로그램' 진행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전북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북 탐방 프로그램'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정읍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자들은 전북의 향기와 자연, 문화를 온몸으로 공감하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내장산 숲속에서 향기유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자연 향을 느끼고, 숲길을 걸으며 계절이 물드는 풍경 속에서 전북의 숨결을 가까이 마주했다.

또 달빛이 드리운 호반로를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기관 간의 거리를 한층 좁혔다.

내장산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공단 이 직영하는 생태체험·환경교육 시설

로, 내장산의 울창한 숲과 호수를 품은 전체의 자연환경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제공한다.

특히 2024년 전라북도 치유관광단지로 지정되며, 숲 치유·감성 트레킹·공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갖춘 전국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가자들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북의 자연과 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이 커졌다"며 "기관 간 교류 속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실상희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탐방이 전북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며 상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도는 이전기관과 유관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활동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 'JBNU 파란사다리' 참가자 모집

## 글로벌대학 사업 일환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해외 대학기업 탐방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도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동계 JBNU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 글로벌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약 4~5주간 해외 대학과

기업 탐방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필리핀 세부의 산호세 대학교 (University of San Jose-Recoletos), 베트남 하노이국립사범대학교(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뉴질랜드 아라 칸터베리 대학(Ara Institute of Canterbury) 등에서 어학연수와 문화 교류,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지 기업 탐방을 통해 전공과 연계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국제적 시야 확대와 진로 역량 강화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는 이번 프로그램을 본교 학생 뿐 아니라 도내 타 대학 학생들에게도 개방한다. 지역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해외 경험이 쉽지 않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전북대 국

제협력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거쳐 해외 대학 어학연수와 기업 탐방 등에 나선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JBNU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세계 무대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대학 간 벽을 허무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교권보호 제도, 행정 비리로 쓰이면 안돼”

###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청렴성과 신뢰 무너뜨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개인 입찰 비리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총 41억 원 규모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수사 중지가 결정, 최근 수사가 재개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교육청 고문·자문번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교육감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교권보호 제도가 교육청 간부들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행정 비리 은폐의 도구로 쓰인다면, 교권보호 제도라는 이름 자체가 현장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교육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최선'

## 11월 14일까지 산업안전 보건 통합 순회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통합 순회점검'을 오는 11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순회점검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반기 점검대상은 총 88개 기관(학교)으로 △점검 실적 없는 기관 △올해 산업재해 발생 기관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기관 △점검 신청 기관 등을 선정해 추진한다. 특히 학생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24개교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필요시 산업보건의를 통한 건강상담도 제공한다. 또 하반기 점검에서는 단순한 위험요인 점검을 넘어 산업재해예방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에서 헌신한 담

당자를 교육감 표창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순회점검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우수사례 확산과 담당자 격려까지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더욱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우석대 임진선 부분부장·김세권 직원, 일자리 유공 표창

##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기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 임진선 부분부장과 김세권 직원이 1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임진선 부분부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과 지역혁신프로젝트, 여성 경력단절 지원, 지역 특성화 지원, 청년 고용

및 노인 일자리 창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세권 직원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협회 및 민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임진선 부분부장과 김세권 직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추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나은 프로그램과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



# 전주교육지원청, 자발적 교육활동보호 문화 확산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자발적 교육활동보호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2025 우리학교 교육활동보호 프로젝트'를 11월 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육활동보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이 적극 지원하는 공모형 프로젝트로, 학교 특색과 여건에 맞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문

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젝트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0개교 3,046명의 교원과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학교 자율 기획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조화를 이뤄, 참여 인원 3,000여 명이 함께하는 자발적 교육활동보호 문화가 학교 현장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연수원,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첫 교육

## 공직 가치·소속감 형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7일부터 29일까지 공직가치 함양과 실무 중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신규임용예정 지방공무원 교육'을 운영

한다. 교육 대상은 교육행정 28명, 사서 4명, 시설 6명, 공업 4명, 시설관리 14명, 운전 16명 등 총 72명이며, 교육 시간은 지난 해보다 대폭 늘어난 59시간으로 강의와 참여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교육감 권한대행 특강을 시작으로 전북교육 주요 정책 이해, 청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등 신규공무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민완성 원

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군산대, 모의 취업 경진대회 재학생 취업 역량 ↑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6일 '모의 취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 기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직무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

를 받았으며 면접 후에는 현지 임원으로 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국립군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오연풍 센터장은 “집중 취업지원 기간 동안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청년 주도 도시 익산 문화·산업 축제 릴레이

익산시가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 조성 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축제를 연이어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오는 19~20일 양일간 전북도와 익산시가 함께 준비하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토크콘서트, 청년 아티스트 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같은 기간인 19~20일 열리는 얼매 축제는 올해 마지막 여름밤을 장식한다. 인기가 수 공연과 시민 노래자랑, 현장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익산의 대표 야간 축제인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제27회 전국 물문화산업전은 '돌아온 돌잔치, 돌돌잔치'를 주제로 채석장 투어, 풍장비 체험, 반려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보석 분야에서는 주얼리 뿌리 기성 경기대전 및 디자인 공모전이 개최돼 전국의 장인과 학생들이 기술을 겨루고, 익산 공동브랜드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혁 청년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년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청년의 꿈과 도전이 익산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SNS 시민기자단 20명 위촉 본격 활동 시작

정읍시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임산물체협단지에서 제2기 SNS 시민기자단 위촉식을 열고 블로그 분야 10명,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분야 10명 등 총 20명을 위촉했다.

시민기자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관광지와 먹거리, 축제·행사 등 다양한 시정 소식을 시민 친근한 시각에서 발굴해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참여 중심의 시정 홍보를 실현하고 행정과 시민 간 양방향 소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특히 제1기와 달리 제2기 시민기자단은 유튜브 운영 대신 콘텐츠 제작 부담을 줄이고, 연령대별 접근성이 높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분야를 신설해 운영된다.

위촉식 후에는 임산물체협단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위촉식과 체험 후기를 각자의 SNS에 게시하는 첫 번째 미션을 수행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기자단 각자의 시선과 개성을 담아 정읍의 자연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SNS를 통해 정읍을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실 시민기자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정부 합동평가 정량지표 보고회·도내 최상위권 목표

정읍시가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3차 정량지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실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열고 도내 최상위권 성적 달성을 목표로 세부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8월 기준 달성률이 80% 미만인 14개 지표 담당 부서장 10명이 참석해 소관 지표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적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주요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정읍시의 평가 대상은 정량지표 65개, 정성지표 8개로 구성됐다.

유호연 부시장은 "합동평가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전 부서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 국가유산야행 최대 예산 확보

### 11년 연속 선정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9억 3천5백만 원 확보

군산시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6년 국가유산야행'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2016년부터 11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국도비 5억 3,700만 원을 지원받게 돼 총사업비 9억 3,500만 원으로 2016년 이래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군산시는 한층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행사 진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가유산야행은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시설을 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산을 활용해 야간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이다.

군산시는 지난 10년간 근대문화유산



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지역 상권 연계,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어왔다.

또한 2025년 야행 행사에는 1일 평균 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군산야행의 입지를 굳혔다.

시는 2026년도 국가유산야행 사업은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방

식으로 재조명하며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6년 사업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유무형 국가유산을 활용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군산만의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고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야간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 청년·AI·전통 아우르는 미래 전략 시동

### 청년경제국 출범 두 달 윈스톱 정책 체계 구축

익산시가 대담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산업·전통산업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을 본격 실행에 옮기고 있다.

김문혁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년경제국 출범 이후 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고 있다"며 "전입-정착-성장"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청년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는 그간 분산됐던 청년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청년경제국과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했다. 취·창업 지원부터 주거·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윈스톱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청년경제국은 전입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청년창업 지원 상담·컨설팅 △청년 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달부터는 '다시, 익산' 청년정책 브랜드를 정비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청년경제국은 청년정책과 더불어 미래 신산업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경제산업과에 '미래산업AI계'를 신설하며, 국가 전략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익산 AI 디지털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 (AX) 전환 △AI 기업 유치 및 육성 △

원광대학교 연계 인재양성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농기계·농식품 등 지역 주력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푸드테크 분야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전북권 AI 산업 생태계 확산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전통산업과'는 보석·석재·섬유 등 지역 연고 산업을 통합해 집중 육성한다. 시는 올해 익산금속제조업협동조합을 공식 출범한데 이어 △공공랜드 '에드베네(ADDBENE)' 판로 확대 △부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선도형)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문혁 청년경제국장은 "청년경제국은 청년·AI·전통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을 본격 실행하고 있다"며 "청년이 정착하고, 신산업이 성장하며, 전통산업을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AI 기반 지방세 수기고지서 자동화

### 당일수납처리 비용 절감업무효율성제고

정읍시가 전북 지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방세 수기고지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행정 혁신에 나섰다.

시는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와 함께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수기고지서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해야 해 담당 공무원이 연간 2000여 건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은 고지서를 스캔한 뒤 문자와 숫자로 변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7일 이상 걸리던 수납처리 기간을 하루로 단축시켰다.

핵심 기술은 AI 기술인 지능형 문서처리(IDP·Intelligence Documents

Processing)로, 정형 문서뿐만 아니라 비정형 문서도 자동 분류하고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형식도 딥러닝을 통해 수납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절어진 인력과 시간을 시민 복지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가을철 맞이 방문객 급증

### 유통량 최근 5년간 최고치 서해 대표 시장 자리매김

군산시는 최근 가을철을 맞아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가 제철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방문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의 대표적인 판매 품목은 오징어로 최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증, 위 판매량이 8월 말 기준 1,557톤을 기록하며 24년도 위판물량인 521톤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점포당 하루 50~100상자씩 완판되는 등 품절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센터는 전국적인 관심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안동시 160여명의 상인들이 역량 강화 워크숍의 하나로 현장을 방문했으며, 18일에는 천안에



서 200여명의 단체 관광객이 방문할 계획이다. 이로써 센터는 명실상부한 '서해 대표 관광 어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해 오징어가 점점 품질과 맛에서 인정받으면서, 외지

에서 군산 오징어와 더불어 제철 수산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품질 관리와 유통에 더욱 신경 써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일자리통합 플랫폼 이름 시민 공모

17~23일 명칭 접수

익산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익산 일자리통합 플랫폼'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1일 문을 여는 '익산 일자리통합 플랫폼'은 공공·민간 일자리를 한곳에 모아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이다.

이번 공모는 플랫폼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에게 친근하면서도 차별화된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이 목표다.

응모는 익산시민 누구나 가능하

며, 접수된 명칭은 내부 심사와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수상작이 발표된다.

수상작은 △최우수상(30만 원) △우수상(20만 원) △장려상(10만 원)을 각각 선정하게 된다. 응모자 중 무작위로 추첨된 40명에게는 참가상을 수여한다. 상금은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다만,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번 공모는 시민이 직접 우리 시 일자리정책의 얼굴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셔서 익산을 대표하는 이름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 '첫발'

정읍시가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사업 타당성을 확정지으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은 수성동 산 40-2번지 일원 약 4만 5000㎡ 부지에 들어서며, 공연장과 다목적 체육관, 전시·교육 공간, 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갖춘 문화·체육·휴식·소통의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여가 활동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지난 4월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6%가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공연장과 체육관, 취미·예술교육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는 복합문화공간이 생활 SOC

인프라 확충의 상징적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교통망 확충과 주차문제 해결, 상권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2040 정읍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수성~구룡 간 순환도로망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불법 주차차 해소와 가로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지역 상권과 연계한 행사 개최로 침체된 상권 회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문화·체육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이어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개관

익산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거점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와 함께 '교육공동체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내 전용 공간에 자리 잡았다.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익산시·익산교육지원청·원광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자체·교육청·대학의 협력체

계를 가시화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개관을 계기로 센터를 유아 돌봄부터 인재 양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까지 교육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현율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지원센터 개관으로 교육혁신과 청년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22일부터 어린이·임신부 등

군산시가 22일부터 어린이를 시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먼저 어린이 중 생후 6개월부터 9세 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대상자는 22일부터 한 달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한다. 그 외 9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는 29일부터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10월 15일 75세 이상 어르신 △10월 20일 70~74세 어르신 △10월 22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

종이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10월 27일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14·18세 및 60~64세 군산·시민·보육·돌봄 종사자에게 접종이 시행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 임신부 및 고령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입원 및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라며, "개인면역을 비롯한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에 본격화되는 11월 이전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부안군, 농생명용지 7공구 전환 강조

### 권익현 군수,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장 면담 RE100 국가산단 건의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지난 10일 서울 하림그룹 본사에서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건의하고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올 연말 예정된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결정을 앞두고 권 군수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쏟는 강한 의지와 절박함을 다시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권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



령의 전북 광역 공약인 '새만금 RE100 국가산단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실현하고, '모두가 잘 사는 지역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임을 강조했다. 이어,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

업용지 전환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업 단지를 확충하고, 부안군이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교통사고 다발 '신림육교' 철거

### 내년 5월 공사 완료 교통사고 예방·감소 기대

그동안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 및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고창군 신림면 범자리 신림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위치한 신림육교를 철거한다.

1996년에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신림육교는 시야방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폐 시설로 도로 교통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인근 환산마을, 범지마을 등을 중심으로 한 신림면민들이 육교 철거를 추진해 고창군에서는 2021년 4월경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위험도로 및 병



목지점 개선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2025년 9월부터 신림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림육교를 철거하고 신림면 입구교차로를 개선할 계

획이다. 사업비는 6억9400만원이 소요돼 2025년 5월 실시계획을 착수해 2026년 5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8년 연속 국가유산 야행 공모 선정

### 야간 인프라 불리함 딛고 정책 성과 저력 입증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국가유산 야행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2019년부터 8년 연속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지자체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 등 야간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도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속 선정에 성공한 사례로, 김제시 국가유산 정책의 성과와 저력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선정은 총사업비가 1억 1천만 원 증액된 성과를 거두며, 김제국가유산 야행이 시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 전북권에서는 김제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



며, 올해 함께 야행을 추진했던 일부 지자체 중 3곳은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김제 국가유산 야행은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분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객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가유산 야행 공모 8년 연속 선정은 김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야행을 만들어, 지역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제17회 부안 곰소젓갈축제' 개막 D-1

### 19~21일 개최 체험·공연 야간문화행사 준비 완료

전국 5대 젓갈시장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젓갈의 산지 부안 곰소에서 제17회 부안 곰소젓갈축제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다.

주요프로그램으로 전국 윗놀이대회, 가족대항 도전 골든벨, 왕새우잡기 체험 등 공연과 흥미로운 체험행사가 병행 진행된다.

축제 첫날은 개막 축하공연으로 100인의 난타와 타악 퍼포먼스 팀의 대박 연주가 무대를 채운다. 무용팀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황아리의 비밀'이 하나돼 만들어가는 곰소젓갈과 함께 여는 미래를 표현하며 강렬한 파탈레를 장식한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서울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고향방문 행사를 유치해 1,700여명이 일시에 부안 곰소 축제장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민·관이 하나 돼 안전사고 없는 행사 운영을 위해 안전대책 마련했으며, 고향방문 출향인 맞이를 위해 곰소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먹거리 등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젓갈전국가요제, 젓갈비빔밥 퍼포먼스, 어린이 전국

댄스페스티벌 등이 준비돼 있으며 폐막행사로 젓갈 화합 한마당을 끝으로 축제의 막이 내린다.

박진성 축제 추진위원장은 "올해 민간주도형 축제로 전환돼 축제의 주제성과 중요성을 알게 됐으며 협회의 결속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축제를 통해 곰소젓갈 장인들이 지켜온 전통성과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방문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안전하고, 추억을 남기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국민공감대상' 수상 영예

### '축제관광도시' 부문

전북 고창군이 1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국민공감대상'에서 '축제관광도시' 부문 수상 영예를 안았다.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국민공감 캠페인'은 수많은 경영전략 및 브랜드 가운데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고창군은 올가을 '2025 세계유산축전'과 '제52회 고창모양축제'

를 연이어 개최하며 축제 분위기로 물든다. 두 행사는 고창의 역사와 세계적 가치를 집약한 대표 축제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전통을 지켜내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킨 성과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축제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새만금 '만경 6공구' 김제시 관할 결정

### 방수제남북2축도로 확장 '길등 멈추고 투자유치 힘모아야'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및 '김제시 연결 남북2축도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시장 정성주)로 결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5년 제4차 회의'에서 만경 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시 연결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 이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진봉면, 농생명용지 6-1공구와 연결한 공유수면에 위치한 5.4km의 방수제로, 2021년 9월 완공됐으며 지난 4월 제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또,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중심부를 종단하는 왕복 6~8차선, 총연장 27.1km의 간선도로로 2023년 7월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지난 6월 제3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제

4차 회의에서 각 시군 연결 구간별로 관할이 최종 결정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남북도로까지 관할이 순차적으로 확정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의 큰 윤곽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소모적인 관할권 갈등을 멈추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국가 경제발전 기여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새만금신항 등 관할 결정에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김제시는 새만금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연결 지역 가운데 아직 매립되지 않아 관할이 결정되지 않은 향만경제특구, 그린수소 복합단지, 산업용지 등 또한 관할 구도에 따라 김제시로 결정되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시,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 10월 31일까지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친체민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작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을 초과한 가구 △2025년 6월 건강보험금 부과 금액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소비 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민생 회복 표준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을 초과한 가구 △2025년 6월 건강보험금 부과 금액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를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 멜론 페스타' 선운산도립공원서 열린다

### 20~21일 프로그램 풍성

고창군이 선운산 꽃무릇과 함께 하는 '2025년 고창 멜론 페스타'가 오는 20~21일 선운산도립공원 잔디밭 광장에서 열린다

고창군과 고창멜론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고창 멜론의 우수성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객들이 고품질의 고창 멜론을 직접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멜론 관련 다양

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한다.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창 멜론과 농특산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농가들의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운산 꽃무릇과 어우러진 이번 멜론 페스타는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농특산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며 "고창 멜론의 달콤함과 풍성한 가을바람 풍경을 선운산에서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20일~11월 8일까지 도심 속 복합문화행사 운영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10월 4일 제외) 매주 토요일,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일대에서 복합문화행사 '부안 플라: 플레이리스트'행사를 총 7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간을 중심으로, 전시, 플라마켓, 공연, 체험형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형 문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가 위치한 터미널 인근 구도심 지역은 한때 부안의 중심 생활권이었으나, 최근 상권 위축과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며, 정기적인 방문 유도와 소비활동 촉진을 통해 터미널 주변 원도심 상권의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행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플라마켓은 12시~5시, 버스킹 공연은 2시~5시, 전시는 상시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기획 콘텐츠로 순환 운영된다.

새만금도시과장은 "부안 플라'행사는 도시재생 거점 공간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활동이 함께 흐르는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시도"라며, "주민, 청년, 예술인,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원도심 도시재생의 실질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제27회 김제시평선축제' 제2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한 제27회 김제시평선축제 제2차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희옥 부시장이 주재하고, 각 부서의 프로그램 담당 팀장들이 참석해 축제 준비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는 홍보축제실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직제에 따라 프로그램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김 부시장은 각 부서에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제2차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각 부서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보완 사항 공유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전달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읍, 교촌마을 도시재생 청년특화주택 주민 간담회 열어

고창군 고창읍이 교촌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 관련, 주민 간담회를 열어 마을 발전 방향과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낙후된 마을이 새롭게 변화하고, 청년층이 유입되면 마을이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환영했다.

앞서 고창군은 '2026년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청년 특화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83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총 97억원 규모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청년 특화주택 사업은 총 86억8000만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이길수 고창읍장은 "도시재생과 청년 특화주택 사업은 단순한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남원시, 농민 공익수당 72억 추석 전 지급

### 15,627명에 60만원 선불카드 제공 지급대상 확대·전년비 4천명↑ 청년·여성 농업인도 지원길 열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9월 17일부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총 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097명이 증가한 15,627

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단위로 확대하고, 주소 및 경영체 등록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여성 농업인 등 이전 제도에서 소외되던 계층의 참여가 증가했다. 남원시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았으며,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 15,627명을 확정해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30만원을 남원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한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17일부터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사용 기한은 1년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업, 전자상거래, 교통분야에는 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한국관광정책대상 관광마케팅 대상

### 전통 장문화 관광자원 재해석 MZ세대 공략도 호평

순창군이 지난 15일 한국관광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5 제3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서 관광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한 관광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정책의 혁신성, 실행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결정한다. 이번 수상에서 순창군은 전통 장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연결시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3년 출범한 '순창발효관광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발효문화관광 마케팅, ▲순창장류축제 개최, ▲



순창군은 지난 15일 '2025 제3회 대한민국관광정책대상'에서 관광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순창군>

장류 캐릭터 및 굿즈 개발,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각적인 전략이 돋보였다. 아울러, '순창 떡볶이 페스타' 개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캠페인 등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를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고유 의 정체성과 관광 매력을 동시에 부각

#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완주9품·먹거리 200종 '다채'

### 물고기잡기 등 체험·맛동시 충족 축제 캐릭터 '뿔떡이' 굿즈 첫선

완주군 대표축제인 제13회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올해도 풍성하게 마련한 콘텐츠들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완주에서 본능을 깨워라! 와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식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재미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축제는 청정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리틀와푸족, 트리 익스트림, 워터롤러, 맨손 물고기잡기, 불타는 화덕구이 등 와일드한 체험 뿐만 아니라 완주군 특산품인 9품과 신선한 지역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200여종이 준비되어 있다. 신명나는 농악과 함께 전통방식으로 돌을 달군 후 감자나 고구마를 익혀먹는 감자삼국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이다. 또한, 처음으로 선보이는 굿즈팝업스토어에서는 축제 캐릭터인 '뿔떡이'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와 축제장 내 문화

체험부스와 연계한 상품들도 준비되어 축제를 2배 더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신바람 체조대회 등과 같은 지역 연계 행사와 주민 동호회와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공연, '와일드한 가래떡의 반란' 대형 퍼포먼스와 같은 관광객 참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완주군 홍보대사와 김희재, DJ아스터, 스킵&하하, 황민호&황민우가 보여줄 화려한 공연들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발전포럼, 경찰특화도시 조성 전략 심도 토론

### 시-경찰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가속화

남원시는 오는 19일 오해브레이 호텔에서 라벤더홀에서 '제2회 남원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부 협약식과 2부 정책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제2중앙경찰학교와 경찰수련원 등 경찰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남원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지원할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어 열리는 정책세미나에서는 전북도, 한국경찰학회, 남원발전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의 경제성 ▲경찰특화도시 조성 필요성 ▲향후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의 준비 상황과 강점을 전국에 알리고,



남원시는 오는 19일 '제2회 남원발전포럼'을 열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제2중앙경찰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남원시>

최종 유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중앙부처 산하 교육·연구기관의 상당수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남원은 영호남의 중심에 위치해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상징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국정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운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그 실현을 앞당길 핵심 과제이다. 정치권도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후보지로 제시된 운봉 부지는 총 166만㎡ 규모의 100% 국유지로, 계획관리 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별도의 행위 제한이 없다. 국유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국유재산 효율화 정책에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상 수상작 강은옥 씨의 '꽃길 위 불꽃의 향연' <사진=순창군>

# 순창군, 제1회 양지천 사진공모전 수상작 선정

### 대상 '꽃길 위 불꽃의 향연' 양지천 밤 풍경 담아 호평

순창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양지천을 배경으로 한 '사계절 양지천에 반하다'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17일 공개됐다.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45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사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아 창의성, 표현력, 주제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강은옥 씨의 '꽃길 위 불꽃의 향연'이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양지천의 야경과 순창 군민의 날 불꽃놀이가 장면을 절묘하게 포착한 사진으로, 새로운 시각과 감각적인 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입선 35점 등 총 40개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순창군 공식 유튜브 채널 '순창튜브'와 인스타그램 '순창스토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3색 장날' 완주 로컬상품 박람회 20일 개막

### 장터·공작소·미식탐험 3개 테마 명절 특별 할인·세계음식 체험 등

완주군이 오는 20일 완주군청 어울림광장 일원에서 완주경제센터 주관으로 '완주 삼색(三色) 장날'을 주제로 한 완주상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총 42개 부스, 5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완주 소상공인이 준비한 로컬 먹거리 체험과 전북중국어인협회 등 세계음식 체험이 함께 진행된다. 박람회장에서는 키즈 플라마켓을 비롯해 어린이 환경지킴이, 리사이클링 제품 전시 등이 준비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마련돼 실속 있는 소비를 원하는 방문객들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 완주 순맛 공작소는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험하는 공간으로,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공예·요리·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7개소)을 운영한다. 또한 완주 미식 탐험 코너에서는 완주 소상공인이 준비한 로컬 먹거리 체험과 전북중국어인협회 등 세계음식 체험이 함께 진행된다. 박람회장에서는 키즈 플라마켓을 비롯해 어린이 환경지킴이, 리사이클링 제품 전시 등이 준비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행복순창몰' 추석 장보기 특가 이벤트

###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 농가 소득·브랜드 경쟁력 강화

순창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26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행복순창몰'에서 '추석 장보기 민생회복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동안 급증하는 장보기 수요에 발맞춰, 군민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순창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행사 기간 중 행복순창몰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2,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임업 업체 전 상품을 대상으로 건당 3,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되며,

총 4,000건의 구매에 대해 할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총 지원 예산은 1,4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현재 행복순창몰은 7,28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매출은 약 2억 3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1억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창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을 이끄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 순창군은 신규 회원 유입과 함께 임업 업체들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성과 분석을 통해 쇼핑몰 운영 방향도 재정비한다. 임업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순창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한국예총 남원지회, 제42회 남원예술제 개최

남원시가 후원하는 제42회 남원예술제가 '예술을 닦다'를 주제로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장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사)한국예총 남원지회(지회장 문광수)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예술인 150여 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도 제42회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남원의 문화예술 축제이다. 15일부터 20일까지 춘향문화예

회관에서는 남원미술협회·남원사진작가협회·남원문인협회 소속 지역 예술인의 작품 80여 점이 '예술로 닦다'를 주제로 한자리 어울려 전시된다. 19일 오후 7시부터는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 공연장에서 남원음악협회·남원무용협회·남원연극협회 및 외부 지역 예술인 150여 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도 제42회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남원의 문화예술 축제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명지각, 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5년 제23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명지각'이 준공부문 최우수상(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명지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2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로 선정돼 국비 지원(39억)을 시작으로 금동과 쌍교동 부지에 총 사업비 94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870㎡, 지상1층, 12동 11객실 규모로 조성, 지난 6월 30일부터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공모전은 산림청 주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명지각은 목조건축 분야의 우수성과 전통 건축의 현대적 활용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장기적으로 인근 전통 한옥과 연계해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고, 전통문화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자동차업계 '일자리 붐피 직전' 완주군, 고용안전 간담회

16일 전주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한 통합기업지원TF' 간담회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참석해 지역 자동차산업 협력사의 고용안정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한 지역 협력사의 경영·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비롯해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 협력사 컨설팅 결과와 추진 현황 공유 ▲고용유지 등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협력사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훈련 확대, 고용유지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섣달은 지역 고용과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완주는 전주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협력사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상용차 산업의 심장인 만큼, 오늘 논의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실전 시뮬레이션' 지진 대비 주민참여 대피훈련

순창군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대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지진 대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순창읍 순창로 127에 위치한 행복누리센터 일원에서 진행되며,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과 건물 일부 붕괴 상황을 가정된 실전형 대피 훈련으로 구성된다. 훈련 시나리오는 순창군 남서쪽 6km 지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제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올바른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대피 훈련과 함께 안전 교육이 병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순창군청 40명 ▲순창경찰서 10명 ▲순창소방서 10명 ▲지역 사회단체 및 주민 50명 등 총 110명이 참여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국내외에서 지진 발생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장수군, 한우랑사과랑 축제 연계 장수물 포인트 적립 이벤트

장수군은 장수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에서 제1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기간인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장수물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사과마당과 농특산물 판매전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한 뒤 안내부스로 영수증을 제시하면 사은품 또는 장수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행사다.

구매 금액은 사과마당과 농특산물 판매전 내 전체 금액을 합산해 인정하며, 5만 원 이상 구매 시 타포린백 또는 보온보냉백 중 한 가지 사은품을 증정하고,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과 함께 장수물 포인트 1만원이 적립된다. 포인트는 최대 5만원까지 제공된다.

사과, 오미자, 사인머스켓 등 신선 농산물부터 장류, 부각, 쌀과자 등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총 31개 농가가 참여한 다채로운 품목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은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며 풍성한 혜택을 누리고, 장수물 온라인 포인트 적립까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통해 장수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고품질 딸기 생산 빛반사 멀칭 시범 사업 추진

진안군은 딸기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딸기 베드 빛반사 멀칭(타이백) 실증재배를 3.3ha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진안군은 올해 12곳을 대상으로 딸기 베드 시설에 타이백을 설치해 햇빛을 반사시켜 그늘진 부분에 고르게 전달, 광합성이 개선되고 과실 착색이 촉진 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빛반사 멀칭(타이백)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의 극세사 부직포로 투습·방습성과 빛 반사도가 매우 뛰어나 광합성 증대, 조기수확, 고온과해가 방지되는 친환경 부직포이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노금선 소장은 "이번 타이백 농가실증을 통해 진안딸기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상품성 향상과 조기수확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안군은 돈버는농업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임실N치즈축제 관광객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임실군이 대표 축제인 2025 임실N치즈축제 기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기존 4일에서 5일로 하루 늘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며, 축제장 및 관광지 방문, 식사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인원 이상 유치 시 버스 한 대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임실N치즈축제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내국인 30인 이상 전라북도 외 지역 여행사에 한하며, 외국인 15인 이상 유치 시 전라북도 포함 전국 여행사 지원 조건이며, 축제장 식사 1식 및 기존 체류시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사는 임실군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에 사활

### TF팀 꾸려 사업 계획 마련 조례 제정 등

무주군은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전략회의를 개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는 황인홍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전담팀(TF팀) 단장(무주군수)을 비롯한 최정일 부군수와 이종현 행정복지국장, 이두명 산업건설국장, 신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기획조정실과 인구활력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기본소득 연계 지역 내 순환경제 체계 구축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구체화 및 실

현 가능성 제고, △지방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등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취합된 의견들은 해당 분야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13일까지 '무주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으로,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등의 기본소득 지원 목적을 비롯해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황인홍 단장은 "무주군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주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전격 시행, 농촌인구 전담 부서 편성,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동참의지 등 시범사업 성공 추진의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라며 "철저한 준비로 전략안보산업 중심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무주군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관련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기획재정부, 자매결연 후 첫 교류

### 초고속 후속 조치 지역경제 큰 힘

임실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획재정부가 협약을 끝내지마자 곧바로 지역을 방문, 워크숍을 가지면서 양 기관 간의 신뢰성에 더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열어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직원 15명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임실군에서 워크숍을 갖고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지를 찾아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는 한편, 치즈 등 지역 농특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몸소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져 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체결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자매결연 협약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임실군과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세 기관이 참여했다.



치즈체험

<사진=임실군>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은 물론, 주민과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 교환을 약속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직원들은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와 향토 음식을 직접 체험하며 임실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기재부 방문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중앙부처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참 의미 있고 기쁜 일이었다. 일회성 협

약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보니 신뢰가 간다"며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맺은 기재부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많이 찾아 주셔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임실군과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개막

###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세대 함께 즐기는 축제

장수군은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장수 의 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정 고원에서 자란 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를 대표하는 레드푸드를 총망라해 장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와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텐트와 2,500석의 좌석을 마련해 '한우마당'의 규모를 키워 군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장수한우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명

품 장수사과를 한 공간에서 만나고 맛볼 수 있도록 별도로 '사과마당'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메인 무대 관람석 1,000석 규모 차양막 설치, 실내체육관 무더위 쉼터 운영, 포토존 확대, 야간 불꽃놀이 등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강화했다.

또한 빨간색을 내세운 우리나라 대표 레드푸드 축제에 걸맞게 축제장 전역을 1만 5천본의 빨간 베고니아로 단장했으며 의암호 주변을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연출했다.

축제장에서는 장수 한우를 직접 구워 맛볼 수 있는 '한우마당', 제철 홍로사과와 다양한 품종을 선보이는 '사과마당', 장수의 대표 특산물인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으로 만든 특별한 레드푸드 메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레

드푸드존'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전문 셰프와 함께하는 '레드푸드 요리 만들기',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아빠와 함께하는 토마토스과게리', 사찰음식 장인 정효스님과 함께하는 '레드푸드 사찰음식 만들기' 등 장수 레드푸드 축제의 정체성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올해 축제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추억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7080세대를 위한 낭만콘서트를 시작으로 축제의 포문을 여는 개막 축하콘서트와 활력이 넘치는 레드콘서트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페막콘서트와 불꽃놀이가 펼쳐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정수=최진수 기자

## 마이산 탐사, 진안홍삼축제기간 관람료 면제

### 문화종교적 의미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국불교교과종 마이산탐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년 진안홍삼축제 기간 동안 축제 방문객들이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탐사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축제를 찾은 많은 방문객들이 마이산의 독특한 자연 경관과 탐사에 담긴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탐사 관계자는 "진안홍삼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진안의 상징적인 명소인 마이산 탐사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마이산의 풍광과 탐사에 담긴 깊은 역사, 문화, 종교적 의미를 직접 느끼고, 진안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다 가깝고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성공

적인 축제가 되고, 방문객 한 분 한 분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안홍삼축제는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진안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2025 취업박람회 개최

18개 기업 250명 구직자 참여

임실군이 지난 11일 임실을 행복누리원에서 18개 기업과 25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임실군 취업박람회인 '2025년 임실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일(JOB)로 만난 사이, 일(JOB) 낮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특성화고인 한국지트스쿨과, 전북벙고 학생들과 지역 예정 군 장병 등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 구직자도 대거 참여해 활기를 더했다.

구직자와 기업 간 높은 관심과 열정 속에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임실군을 대표하는 (뉴트라고

어, (썬한F&B, 나래식푸드), (썬사조오양,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썬삼강다슬기마을), (유)왕성식품, (썬진성기업 등 8개 기업은 채용 상담관을 운영하며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여기에 지난해와 달리 10개 간접 참여 기업이 더해져 구직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채용 성과도 두드러졌다.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구직자들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썬)는 7명 이상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총 30여명이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 추후 통보 및 2차 면접 예정자를 포함하면 채용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의회, 영호남내륙철도 지선 신설 등 촉구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내륙철도 장수읍 경유와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철도 지선철도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수읍 경유가 확정되어야 국민 교통 접근성과 생활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산업 활성화와 인구 소멸 대응이라는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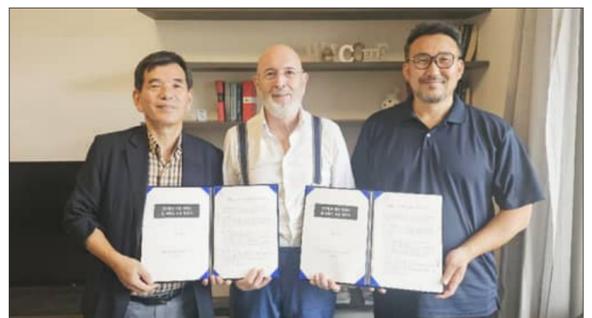
또한 지선철도가 신설되면 함양·거창·합천·고령 등은 새만금권과 연계

성이 강화되고, 광주·담양·순창은 무주리조트와 직결되는 등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매년 49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낙후된 내륙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회는 "장수역은 향후 2036 전주 하계울림곡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국가 교통 거점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달빛내륙철도 장수읍 경유 확정과 영호남내륙철도 지선 신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하라고 촉구했다.

/정수=최진수 기자



### 진안홍삼, 이탈리아 K-Shop 입점-홍보관 계약 성사

12월 초 오프라인 매장 입점

사)진안군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17일 "진안홍삼 브랜드의 이탈리아 파도바 K-Shop 입점 및 홍보관 설치를 앞두고 진안홍삼 해

CiaoASIA 법인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진행했다.

사업단은 CiaoASIA 현지법인(강광배 교수)과 이탈리아 파도바 지역에 12월 초 K-Shop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홍보관 설치를 앞두고 진안홍삼 해

원 음메트로 나르디 박사의 진안군 방문을 계기로 홍보관 설치와 함께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현지 입지 및 세부적인 매장 점점을 완료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는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현재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 위기에 내몰려 지역공동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의회는 이 같은 현실이 조속히 개선

되지 않는다면 군민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농어촌 전반의 미래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수군에 도입될 경우, 귀농·귀촌 활성화와 청년 인구 증가, 지역경제 순환 구조 조성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장수군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장수군을 반드시 우선 반영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정수=최진수 기자



### 사랑의 품 봉사단, 익산 옹포면에서 한방진료 봉사활동

익산시 옹포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방진료 봉사 활동이 진행됐다. 17일 옹포면에 따르면 '사랑의 품 봉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침술과 뜸 등 주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한방 진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사랑의 품 봉사단은 고(故) 구당 김남수 뜸사랑 회장의 한의사 제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의료시설이 부족해 시내 병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 활동에 나섰다. 주민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 옹포면 지역사회의 세심한 배려도 더해졌다. 행사를 주관한 '산들강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희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 누구나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와 시설을 제공했다. 또한 '옹포면 자율방범대(대장 최성철)'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교통편을 지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장수 번암느티나무 협동조합, 추석 앞두고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번암면 번암느티나무 협동조합(이사장 장동업)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15일 번암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번암면은 이날 2층 회의실에서 김성은 번암면장을 비롯해 번암느티나무 협동조합 관계자와 함께 기탁식을 열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탁된 성금은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성금 전달을 넘어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공동체의 온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나눔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 확산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사례로 평가된다. /장수=최준호 기자

## 완주군 텃기니, 100인 음악회 '올림' 성료

### 100인 플래시몹 등 예술 무대 펼쳐져

완주군 생활문화 공동체 '텃기니'가 최근 완주군청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함께 만드는 100인 음악회 올림'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완주군과 전주시 통기타 동호회가 함께한 100인 플래시몹을 중심으로, 대금, 소프라노&테너, 목관 앙상블, 첼로&피아노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예술 무대가 어우러지며 지역에 폭넓은

문화 향유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더해 지역 공동체의 응원과 연대의 의미를 한층 강화했다. 김옥자 텃기니 대표는 "올해로 3년째 이어온 텃기니의 '올림' 공연은 생활문화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라며 "지역민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통해 문화가 일상의 회복과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진안경찰, 북한이탈주민에 난방용 땔감 지원

진안경찰서(서장 홍장득)는 지난 16일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땔감을 지원하는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진안경찰서 경비안보과 직원들과 함께 난방용 땔감을 화물차에 싣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기 난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땔감을 전달해 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이모씨(81세)는 "고령으로 땔감을 주셔서 하려니 힘들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나무를 구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안경찰서(서장 홍장득)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정읍 유영천 씨, 100세 생신 맞아 라면 100박스 기탁

### 유영천 씨 일곱 남매, 아버지 장수 기념 나눔 실천

정읍시에 거주하는 유영천 씨의 100세 생신을 맞아 일곱 남매가 라면 100박스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인순, 정규, 점례, 인숙, 희순, 홍규, 경규 등 일곱 남매는 지난 8일 아버지의 장수를 기념하며 받은 축복을 지역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모아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 기탁된 라면은 정읍시 공유냉장

고를 통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명절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큰아들 유정규 씨는 "시아버지의 100세 생신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다. 단순한 축하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라면 100박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 군산수해자에 성금기탁

군산시는 (사)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대표 김선례)가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의 발전을 응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는 2017년에 설립됐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선례 대표는 /군산=지송길 기자



### '전주 2025 말씀대성회' 성료

증거장막성전 도마지과 전주교회(지파장 광종렬)는 '전주 2025 말씀대성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주 2025 말씀대성회'는 '게시록 성취 실상 증거' 주제로 전국 말씀대성회 시작에 발맞춰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종교인,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요한계시록 해석에 귀 기울여 경청했다. 평소 가졌던 성경에 대한 의문점을 시원하게 해소하며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됐다. 광종렬 지파장은 '요한계시록 해석과 성취 실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 광 지파장은 '회개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워 이겨라. 이기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보내신 것'이라며 "이는 비유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계시록 4장을 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서울 향우 모임 '고사모', 부안군에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15일, 서울시 중랑구에서 활동 중인 부안 향우 친선모임 '고사모(고향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100만 원의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고사모'는 서울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안 출신 향우들의 친목단체로 고향과의 유대감 형성, 정보 교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지속적인 연결을 이어오고 있다. '고사모' 이진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7명이 부안군청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 기탁식에서 이진수 회장은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부안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뜻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멀리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찾아와 정성을 보태주시는 고사모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응원이 부안군의 힘이 되고 더 많은 향우들의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함께해요!

##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 하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분해 하는 데는 500년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실천 해 주세요



〈一事一言〉



김정은의 '안러경중'과 신냉전 굳히기 성공할까(1)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북한의 외교적 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80주년 중국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9월 1일 평양역을 출발했다. 김정은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의 중국 방문이자, 첫 다자외교무대 등장이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반미·반서방 국제연대 강화를 과시하는 자리인 만큼, 예상은 깬 김정은의 참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방문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격의 의미를 띠고 있다.

제70주년 전승절 행사 때 천안문 망루에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우측에 푸틴과 박근혜 대통령 등 외빈이 서고, 좌측에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임 주석들이 자리했다. 이번엔 시진핑 절대권력을 상징하듯 중국원로들이 배제되고 그 대신에 시진핑 좌우로 외빈이 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우측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좌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북·중·러 3국 정상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기는 상황이 연출됐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일성 주석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 양자외교를 펼쳤지만, 여러 차례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주석은 한국전쟁 직후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6월 1일 ~ 7월 19일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9개국을 순방했다. 1957년에는 소련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식, 1959년 1월 소련 제21차 공산당 대회 및 같은 해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경축대회, 1965년 4월 비동맹회의의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은 1967년에 북한이 '유일지도체계'를 수립하고 1974년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하면서 점차 다자외교 활동을 줄였다. 김 주석이 다자외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0년 5월 비동맹운동의 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요시프 티토 대통령 장례식, 그리고 1983년 제7차 비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984년 5월 16일 ~ 7월 1일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7개국을 순방한 것뿐이다.

이에 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재임 중 다자외교무대에 참석한 사례가 없다. 김정일이 해외에 나간 것은 김일성 주석의 수행원 자격으로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의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도이다. 그는 대부분 평양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열차를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국비리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양자외교를 전개했다. 이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은둔형 지도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외교무대 등장은 김정일 때와 비교하면 새롭지만, 김일성 때와 비교하면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끝으로 열지 않다가 36년 만에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었다. 2025년 6월 12차 당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제9차 당대회를 소집했다. 정기적인 당대회 개최가 '당의 정상화' 과정이라면, 김정은의 다자외교무대 등장은 '외교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김정은의 다자외교무대 첫 등장이라는 '형식'에 맞지않게 그가 어떤 관점을 갖고 다자외교에 나서는가 하는 '내용'이다. 김정은의 최근 외교행보는 현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보는 그의 국제정세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22년 12월 제8기 6차 당전원회의에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확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국제정세 인식 아래 2023년 12월에 열린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는 외교 3원칙(당의 존엄 사수, 국위 제고, 국익 수호)을 발표하면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를 주문했다. 실제로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국경을 재개방하며 외교활동을 재개했다.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미 전선에서 있는 이란, 벨라루스는 물론 베트남과 라오스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

한 외교전략구상의 핵심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교포석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이다. 2023년 7월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으로 시작된 북·러 관계 개선은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조·소 동맹조약>의 자동군사개입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조·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근거해 2024년 10월 마침내 북한 전부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되는 등 첫 해외파병의 기록을 세웠다.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외교포석은 중국과의 관계증진이다. 북한으로서의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이 절실하지만, 대외무역에서 중국 비중이 98.3%(2023년 기준)로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도는 오히려 중국발 체제위기가 될 수 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국정과제에 반영된 공공의대와 고령친화단지

전북자치도의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급속한 고령화 사회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은 이제 그동안의 노력 위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먼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꼽힌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 인력과 시설은 지방의 필수 의료 공백을 심화시켜 왔다. 응급·분만·소아과 등 기피 과목은 특히 심각하다.

전북은 이미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하고 부지를 절반 이상 매입했다. 이 대통령이 공공의대를 7대 지역 공약에 포함시킨데 이어, 이번에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한 것은 지난 수년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중앙정부·국회를 상대로 치밀하게 설득해 온 결과다. 관건은 법안 통과다. 현재 '공공의대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관계부처·시민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연구용역과 자체 정책 마련을 통해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하며 내년까지 남원 부지매입을 완료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단순히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때때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회를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중요한 안장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국정과제인 고령친화산

업복합단지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실버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14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은 에이지테크(Age-Tech)를 앞세워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전북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6천억 규모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업 입주 공간, 생태공원까지 아우르는 단지를 구축해 아시아 대표 실버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이미 정부 예산안에는 보건복지부 타당성 연구용역이 반영돼 추진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기본구상과 5개년 진흥계획도 구체적인 실행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공공의대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성패는 결국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 그리고 해당 시군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안 통과 지연, 예산 확보 차질, 사회적 합의 부족 등 장애물은 여전하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분명히 기회다. 전북은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다. 공공의대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추진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시험대다. 전북이 국가적 현안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문효공과 정경부인 영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일반회화, 초상화
- 지정일 - 1977년 12월 31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무주군 무풍면  
북리길 40 (현내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간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8-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레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거울에 비친 패종 시계 / 황지우**

나, 이번 생은 배웠어  
다음 세상에선 이렇게 살지 않겠어  
이 다음 세상에선 우리 만나지 말자  
.....  
아내가 나가버린 거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나이가 있다 처자

그는 깨우친 사람이다  
삶이란 게 분디, 손만 땀다 하면 중고품이지만  
그 닳아빠진 품목들을 बे기고 있는 거울 저쪽에서  
낡은 패종 시계가 오후 2시가 찼을 때  
그는 깨달은 사람이었다

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거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나는 너다' '계 눈속의 연꽃'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 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지역을 품고, 도민과 함께 걷는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282-9603 신문구독282-9600

[남원다움관]

남원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기억을 추억하고 기록으로 보존해가는 공간

남원다움관 전경



춘향제 전시



전시실 모습



관람 모습



# 남원시, 기록과 기억을 잇는 '기록의 정원' 조성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중 남원다움관소금창고와 연결된 열린 '기록의 정원' 조성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광한루원 서문 일대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번 사업의 중심에는 건립 중인 '남원 레코드테크'가 있으며, 기존 '남원다움관'과 국가공모사업 로컬브랜딩 활성화 선정지인 '소금창고'를 하나의 정원처럼 연결해 광한루원에서 남원예촌, 공설시장까지 이어지는 문화·관광 축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들 세 공간을 정원 네트워크로 묶어 서로를 이어주는 길을 조성한다. 길에는 나무와 꽃, 휴식 공간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걷다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다. 이를 통해 광한루원 서문 권역을 낮과 밤 언제든 머무르고 싶은 시민 중심의 명품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록'이 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곳은 남원다움관이다. 남원다움관은 남원의 정체성이 담긴 근현대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지역 아카이브로, 2019년 개관 이래 단순한 보관을 넘어 살아 있는 기록을 만들어왔다. 그 결과, 남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작한 콘텐츠로 국가공모사업에 총 9회 선정됐으며, 읍면동과 지역 문화 등을 기록화한 조사집 9권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쌓아왔다.

또한 현재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과 꾸준히 협력해왔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구술 기록과 사업, 사라져가는 남원의 소리 수

집, 옛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로컬 거점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록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왔다.

'남원 레코드테크'가 완공되면, 기존 남원다움관은 '기록동'으로서 기록의 수집·보존·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레코드테크는 '기록동'으로서 전시와 체험, 커뮤니티 활동 등 기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확장된 통합 남원다움관은 남원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반드시 들러야 할 첫 관문이자, 시민들에게는 일상처럼 찾아와 즐기는 문화 사랑방이 될 것이다. 기록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풀어내어 남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을 통해 남원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 시민들과 나누고, '기록이 꽃피는 정원'을 통해 남원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며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 남원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한루원, 남원예촌 등과 연계관광이 가능한 '남원다움관'(남원시 검말1길 14)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남원 레코드테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기록의 조성' 조감도